

장·노년층 '건강' 고민 으뜸 자녀와 동거보다 유료양로원 선호

40대 중반이상의 장·노년층 가운데 대부분은 노후생활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을 꼽고 있고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에도 자녀들과의 동거보다는 유료양로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생명보험이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45세 이상 장·노년층 1천2백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노후생활의 가장 큰 고민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80.8%), 병을 간호해줄 사람(9.3%), 생계비문제(7.0%), 기타(2.9%)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노후의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전체의 71.6%가 자식과 별거해 따로 살겠다고 응답했고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에도 자식들의 집(25.5%)보다는 유료양로

원(74.5%)에서의 생활을 선호했다.

노후의 생계비 조달방법으로는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25.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일을 해서 번다(22.5%), 연금혜택(20.7%), 퇴직금(14.0%), 자식에게 의존(11.4%), 기타(6.1%)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또한 노후의 여가활동으로 화초나 채소가꾸기(74.7%)를 가장 선호했고 거주하고 싶은 건물유형으로는 아파트(60.6%), 연립주택(21.3%), 단독주택(18.1%)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밖에 노후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병원, 건강관리센터, 이발소, 목욕탕, 은행, 종교시설등을 지적했고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는 불만(27.2%)보다는 대부분이 만족한다(72.8%)고 응답했다.

새경 92.3.7